

7월 주식시장 전망

주변부담의 불확실성 희석국면

■ QE 2 종료 이후 정책변화

1, 2차 양적완화가 인플레이 우려와 재정부실을 키움으로서 추가 통화공급 재개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나 공급통화의 유통속도 진작과 저금리 기초 유지를 꾀하는 미국내 금융환경은 경기순환의 회복과정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남유럽 위기에 따른 유로화 약세가 안전자산 선호를 불러내었던 5, 6월과는 달리 7월은 유로존 위기의 해결방안 합의에 따라 유로화의 안정흐름이 예상됨으로서 달러화 강세의 제한과 위험자산 선호현상이 재부각될 것으로 기대됨.

■ 경제지표 개선 시그널을 통한 더블딥 논쟁 희석

QE2 종료시점에서 G2의 경제지표 부진이 기폭작용을 하며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던 국내외 증시는 7월 이후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개선으로 더블딥 논쟁 희석이 기대됨. 일본의 자동차/IT 핵심부품 조달 차질과 흡수 및 허리케인 등의 이상기후 그리고 원자재 가격 부담에 의한 미국의 경기시그널 둔화가 환경변화로 회복조짐을 보일 전망. 중국 또한 돼지고기 등 식료품과 부동산 가격안정으로 물가 압력이 진정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유럽재정위기 합의도출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

그리스 문제의 채무조정 이견으로 빚어진 유럽위기는 유로존 체제유지를 위해서라도 지원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그리스의 신임 내각 인준과 재정긴축안의 의회통과 그리고 EU와 IMF의 재정지원 의지는 사태봉합에 따른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회귀를 끌어낼 것이고 이러한 지역위기 완화는 글로벌 자금의 이머징 증시 유입을 가져올 것이기에 외국인의 우호적 수급변화가 기대됨.

■ 시장대표주 증장기 편입속에 내수주 관심도 병행

시장안정시 자동차와 화학 등 기존 주도주에 대한 증장기 편입전략을 최우선으로 두되 정부의 내수경기 부양의지와 금리인상 기초 그리고 경기모멘텀 공백기를 감안한다면 은행주와 필수소비재 등 내수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Compliance Notice

- 조사분석 담당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위 조사분석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등) 주관사로 참여한 바 없으며,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내용은 기관투자자 등에게 지난 6개월간 e-mail을 통해 사전 제공된 바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1. 6월 주식시장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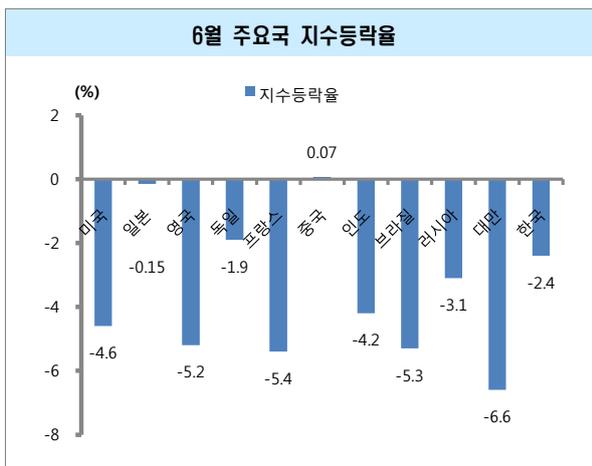
경기둔화 우려속에 유럽재정 위기가 기폭 역할

6월 국내증시는 미국 및 중국의 경제지표 둔화속에 그리스 채무조정 이견에 따른 금융위기가 증폭되며 5월에 이어 2차 지수조정이 진행됨. 일본의 지진여파와 원자재가 부담의 후반영 등이 글로벌 경제지표의 2개월 연속 부진을 이끌며 더블딥 논쟁을 촉발시킨 가운데 그리스발 유럽위기가 해외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지며 외국인 매도가 진행됨으로서 KOSPI 지수는 전월대비 120p이상 하락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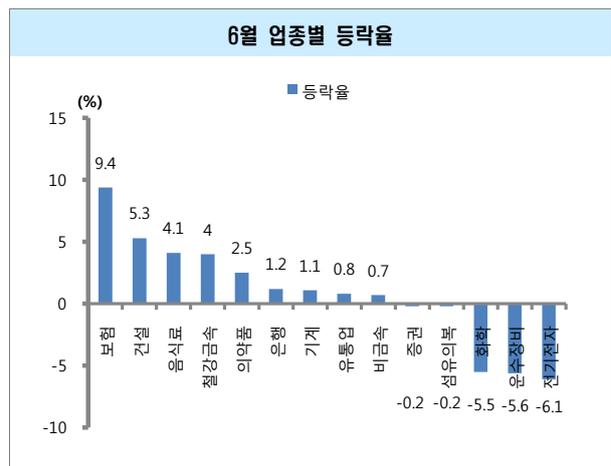
외국인 자금이탈이 유럽계 중심으로 이뤄졌고 랩 중심의 개인투자자 마저 저가매수에서 벗어나며 비중축소로 나선 가운데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한 국가.지방단체 자금이 그나마 지수방어 역할을 담당함. 유럽위기와 경기둔화 우려가 안전자산 선호심리를 불러내며 달러화가 강세로 반전됨으로서 원유와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고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은 글로벌 증시 전반으로 침체양상 확산됨.

미국증시는 경제지표에 대한 실망감과 QE2 종료에 따른 유동성 위축우려 그리고 유럽문제 위기감으로 5% 전후 내리며 하락추세를 연장하는 모습. 특히 경기부진 우려가 IT업종에 대한 실적악화 우려를 불러냄으로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1% 이상 급락하기도 함. 중국 증시는 물가 고공행진이 긴축정책 연장 필요성을 제기하며 하락기조를 지속하였으나 월 중반이후 중국인민은행의 물가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이 호재로 반영되며 강한 반등을 보임으로서 상해종합지수는 전월 수준에서 등락중.

6/24일 현재 매매주체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1조 2천억 원을 순매도한 가운데 기관과 개인은 각각 1 조원과 910 억원 매수우위를 보임. 업종별로는 보험, 건설, 음식료 등 내수주들이 이자수익 기대와 중동 개발붐 그리고 제품가 인상 등의 호재에 힘입어 상승한 반면 화학과 운수장비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은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모멘텀 약화로 낙폭이 두드러짐. 한편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전월 대비 12 bp 상승했고 환율은 1 원 하락중.



자료: BS투자증권(6/24일 현재)



자료: BS투자증권(6/24일 현재)

2. 글로벌 유동성 환경

1) 미국의 유동성 보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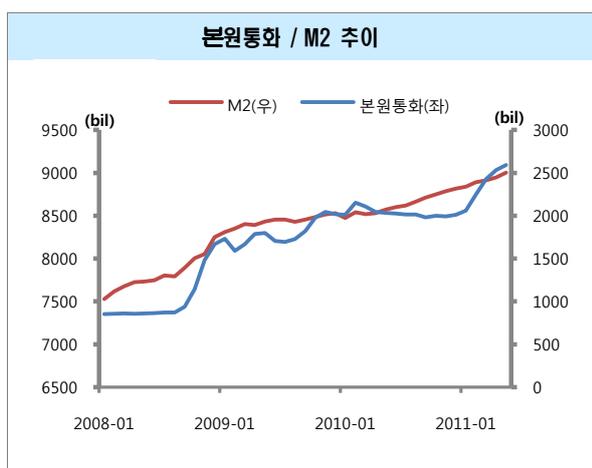
6월 증시가 경제지표 부진에 예민반응을 띠었던 이유는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종료와 맞물린 영향이 컸음. 09년 3월부터 시작된 양적완화 정책이 자산가격 리플레이션을 불러냄으로서 통화공급책의 실효성 의문이 제기됨. 인플레이 우려가 양적완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며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부재가 지적된 가운데 중국마저 생산 및 판매지표가 부진을 나타냄으로서 2 동반부진에 따른 더블딥 논란이 확산됨.

하지만 유동성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 시나리오는 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미국내 유동성은 1,2차 통화공급을 통해 풍부한 과잉수준이기에 추가공급 보다는 통화유통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필요성이 지적됨. 경기악화에 따라서는 추가부양책(QE3)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나 미국내 부채증가와 인플레이 압력의 현실적 한계는 유동성 총량유지의 간접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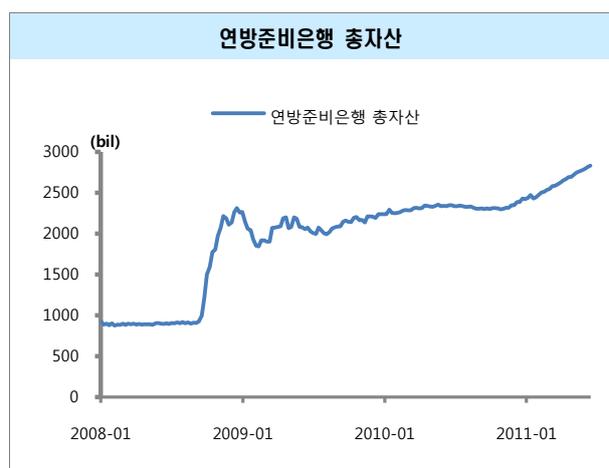
선택될 수 있는 유동성 제고방안은 상업은행이 보유한 초과 지불준비금을 시중에 푸는 것이 유력. 미국내 상업은행들은 신용경색을 이유로 공급통화 대부분을 지불준비금 형식으로 연준에 환원.예금하고 있는 상태임. 미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준금에 대해 이자율 인하 내지 상한제 적용 등을 통해 시중에 풀게 함으로서 통화공급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한편으로는 신용경색 완화를 통한 기업/가계대출 유인속에 연준리 보유채권의 만기도래분을 채투자 함으로서 시중 유동성을 높일 수 있음.

그외 예상해 볼 수 있는 경기부양 대안은 재정정책임. 인플레이 유발과 실업을 개선효과 미비 등 득보다 실이 많은 팽창적 통화정책을 또다시 시행하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물가상승도 양적완화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음. 재정정책은 통화정책 대비 부작용이 적을 수 밖에 없을 것인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는 재정지출을 통한 내수진작책을 꺼내들 가능성이 커보임.

다만, 6월 FOMC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QE3 가능성 희박과 경기동향 확인 이후의 정책변화 여지를 고려한다면 향후 1-2개월간은 통화 내지 재정정책 스탠스를 유보한 가운데 실물지표의 개선여부를 관찰하는 기간이 전개될 것임. 원유증산 요구와 채무한도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 행보를 감안한다면 경기둔화 지속에 따라서는 간접방식의 유동성 보완방안 추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2) 중국 긴축정책의 이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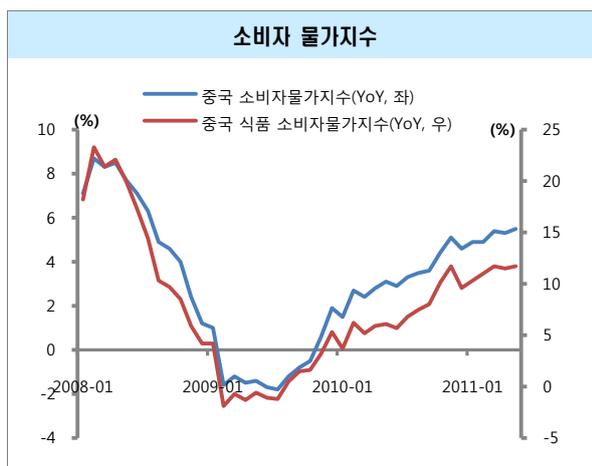
G2 경기둔화가 더블딥 논란을 불러내고 있어 중국 긴축행보가 주목됨. 5월 중국 CPI는 5.5%로 발표되며 3개월째 5%대를 이어갔고 PPI 또한 6.8%를 기록함으로써 수치상으로는 여전히 긴축을 필요로 함. 6월 기준을 인상(50 bp)이 금리인상을 대체한 상황에서 물가압력에 따라서는 7월중 금리인상을 배제할 수 없음. 다만 6,7월 중국 물가가 최정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 긴축강도의 완화가 기대됨.

물가안정 기대변수는 1) 출구전략의 물가지표 반영 2) 원자재와 부동산 가격안정 3) 정부 유동성 통제 등으로 요약. 작년 10월부터 본격화된 긴축행보(기준율/금리인상 동반)는 타임레그 등을 적용하여 물가지표에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이고 국제유가와 원자재가 안정도 물가압력 진정 요인임. 그외 중국의 적극적인 신규대출 억제와 M1,M2 증가율 둔화는 투기성 외화유입 감소와 더불어 인플레 완화를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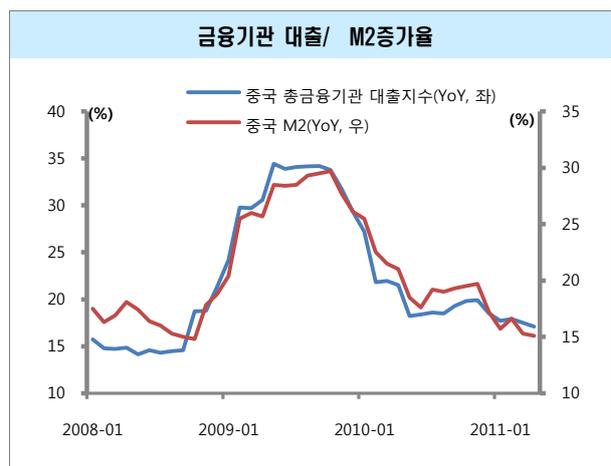
한편 일부지역으로 급락이 나타나는 부동산 가격이 또다른 변수로 주목됨. 출구전략에 의한 경기둔화가 증시부담인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은 통화정책 완화로 반영될 수 있음. 글로벌 경기부진에 따른 수출둔화가 제기되는 가운데 연착륙 유도의 중국입장은 경기둔화와 물가진정의 조합이 확인된다면 금리인상 유보 등 이완된 통화정책으로의 기초변화를 모색해 나갈 것임.

다만 물가불안 변수는 상존함. 우선, 전염병에 따른 사육농가 축소 등으로 돼지고기 값이 급등(연초대비 20%↑)을 지속하고 있고 쌀 가격도 남부지역 가뭄으로 지난달부터 상승추이중. 중국 식료품 가격의 30% 비중을 차지하는 돼지고기는 공급감소와 사료비 급등으로 가격안정이 쉽지 않는 모습임. 그외 여름철 수요증가에 따른 전력 및 가스요금 인상이 거론되는 가운데 물가상승 요인이 주류,의류,생필품 등 재화쪽으로 확산되고 있어 물가진정에는 시간이 더 요구될 수 있는 상황임.

결국 중국 물가변수는 5월 지표가 컨센서스를 넘지 않음으로서 불안감을 완화시키고는 있지만 인플레 압력은 여전히하다고 볼 수 있음. PPI는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CPI역시 목표치(4%)에는 크게 미달됨. 그나마 국제 상품시장이 5월부터 하향안정을 보인다는 점은 실물 지표 반영기간(2~3개월)을 적용하여 7월 이후 추이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음. 그외 글로벌 경기둔화도 긴축행보의 재검증을 요구할 것임.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3) 유럽재정 위기의 부담잔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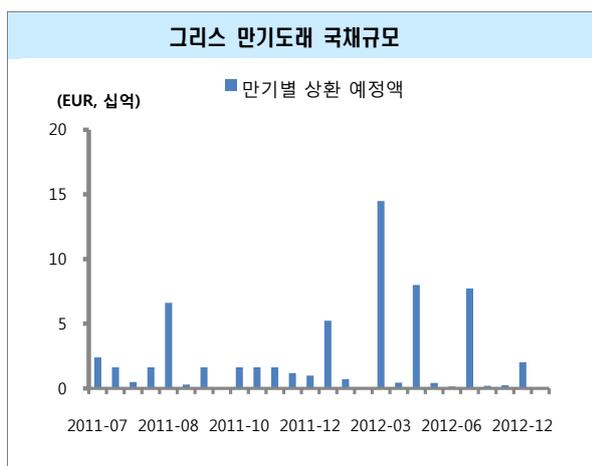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방식에 대한 독일과 ECB간 이견으로 촉발된 유럽이슈는 본질적 해소가 쉽지 않음. 유로존의 체제유지를 위해서라도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점이 약화되며 해외 금융시장은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 마저 열어둠. 그리스 ODS 프리미엄과 국채 10년물 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최종 지원방안 합의는 7월로 연기된 상황임.

ESF 최대 출자국인 독일이 핀란드, 네덜란드와 동조하여 민간부문의 강제적 차환(보유한 그리스 국채를 저금리 장기국채로 교환)등 채무 조정을 주장했던 반면 프랑스, ECB 는 금융시장 안정과 주변국 파장을 막기 위해 반대입장을 고집함. 이러한 과정상에 불거진 S&P의 그리스 국가신용등급 강등(B-CCC)조치는 지급능력 의문을 부각시키며 사실상의 디폴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이해당사자간 조율이 지연됨.

채무조정을 둘러싼 배경에는 재정지원 주체간의 뚜렷한 입장차이가 존재. 독일이 구제금융 지원에 부정적인 여론을 모면하기 위해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이고자 함에 반해 프랑스는 그리스 국채 대부분이 민간투자자로 구성되어 있어 채권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채무조정을 반대함. 그리스 국채를 담보로 쥐고 있는 ECB 또한 채권가격 폭락을 불러올 수 있는 채무조정에 반대. 이러한 지원방식 이견이 민간부문의 자발적 차환(롤오버)이라는 “비엔나 이니셔티브” 로 합의되는 수순을 보이고는 있지만 궁극적 사태해결은 요원한 상태임.

우선, 지원방식 합의도출까지는 적지않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할 상황임. 1) 민간투자자의 자발적 참여유도가 가능할 것인지 2) 차환조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3) 독일 등 반대여론이 비등한 나라에서 재정지원 동의과정이 순탄할 것인지 4) 그리스외 주변 재정위기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지 5) 자발적 부채 롤오버도 디폴트로 간주한다는 신용평가기관의 화살은 피해갈 수 있을지 등 절차수립 상 장애물이 곳곳에 늘려있는 상태임.

1차 구제금융 5차 지원금(120억유로)을 수혈받아야 할 그리스 입장에서 신임내각 인준과 재정긴축안 의회통과는 이번 위기의 해소절차로 인식되지만 2014년까지 1,700억 유로화의 자금소요가 예상되는 중장기 악재성향은 현 수습단계를 미봉책으로 평가절하 시림. 그리스 외에 이탈리아 등 주변국 위기확산 여지 등 궁극적 문제해결까지의 적지 않은 난관은 관련이슈에 의한 시장변동성 위험을 남김.



자료: Bloomberg



자료: 언론매체

3. 해외 경기 모멘텀

1) 미국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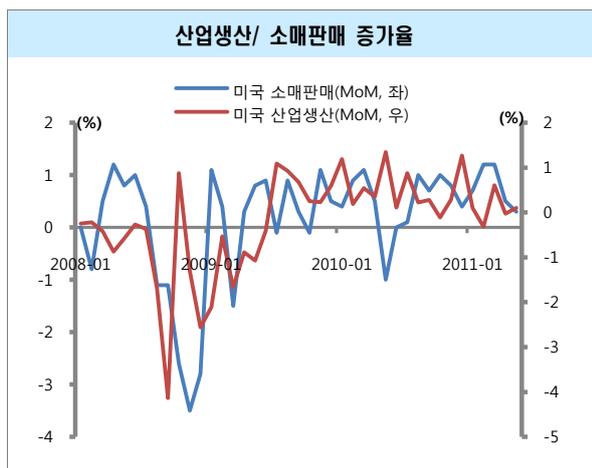
제조업에서 고용부문까지 일련의 악화양상을 띠었던 미국 경기는 자동차 산업의 조업정상화와 이상기후 진정 그리고 원자재 가격안정 등으로 개선 시그널이 예상됨. 6월중 발표되었던 미국 5월 산업동향은 2개월 연속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었으나 자동차 부문을 제외하고는 회복 가능성을 비춤으로서 4-5월 지표악화가 일본지진에 따른 소프트 패치 정도로 이해됨.

경기선행지수가 하락반전 한달만에 재상승을 보임으로서 큰 틀에서의 회복기조를 알림. 상승배경이 유가하락과 일본 부품문제 개선으로 분석되고 있어 제조업과 소비부문 회복이 기대됨. 5월 산업생산은 자동차 제외부문이 전월비 0.6% 증가하며 올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소매판매도 자동차를 제외한다면 전월비 증가함. 설비기동율도 전월 수준 유지속에 제조업 설비기동률은 전월비 0.2%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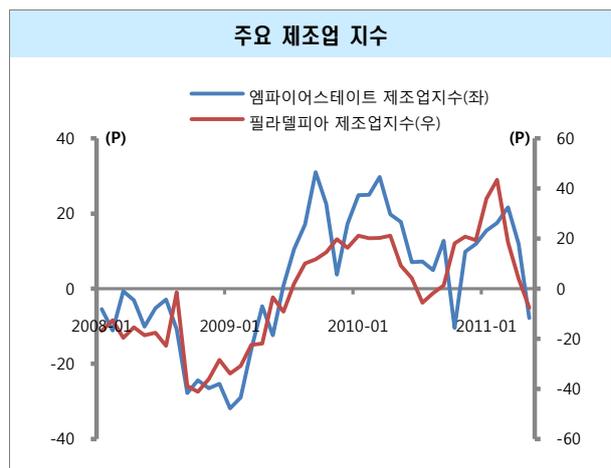
4-5월 경기둔화 징후가 지진여파 등 생산차질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해석되는 만큼 일본의 조업정상화는 미국 경기의 정상탄 진입으로 의미됨. 자동차 산업분석에 의하면 일본의 자동차 부품공급은 6월중 95% 정상화가 예상되고 있어 산업생산의 급반전 가능성도 있음. 전월비 0.2% 감소한 5월 소매판매도 핵심 소매판매가 0.3% 증가함으로서 완만한 소프트 패치를 거치고 있음이 확인됨.

반면, 7개월만에 하락으로 돌아선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7.8)와 9개월만에 경기수축에 진입한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7.7)는 경기위축 우려를 지속시킴. 신규주문과 재고지수 급락속에 ISM 제조업지수의 선행지표로 간주되는 만큼 7월초까지는 경기개선의 확인이 어려울 수 있음. 하지만 심리지표로 의미되며 변동성이 큰 동지표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확대해석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그외 부동산과 고용부문은 부진탈피가 쉽지 않음. NAB 6월 주택시장지수가 작년 9월 이후 최저(13)를 기록한 가운데 성장정책과 차입매물 증가 그리고 건축자재 가격상승이 주택경기 침체를 지속시키고 있어 미국 경제의 빠른 회복 없이는 부동산 침체가 연장될 수 밖에 없는 여건임. 고용부문 또한 5월 실업률(9.1%)이 전월대비 0.1% 상승하며 민간주도로의 성장바톤 터치를 지연시키는 아킬레스로 반영중.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2) 중국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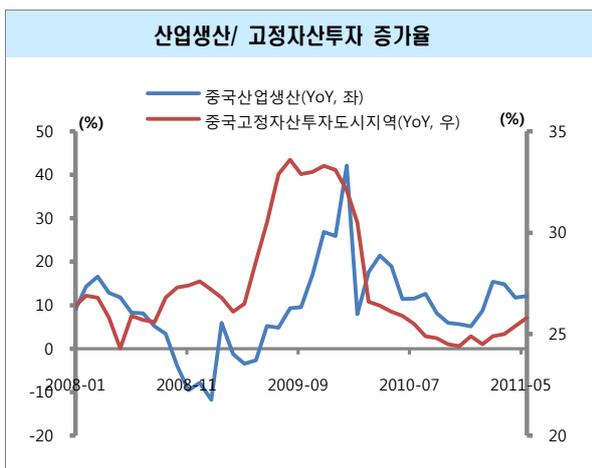
12차 5개년 첫해인 중국 5월 산업동향은 물가지표 고공행진 속에 실물경제는 완만한 속도조절을 확인함. 제조업 선행지표인 PMI가 3개월째 하락했지만 수출은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규모면에서는 사상최고를 기록함. 중국산업이 수출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역환경은 성장엔진으로 작동중이나 수출 선행지표인 신규수출 주문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함으로써 수출둔화 가능성을 내포함.

산업생산은 5월에 13.3%를 기록하며 전월비 감소하였으나 예상치(13.1%) 상회하며 경제성장을 9% 대 유지를 뒷받침함. 항목별로는 자동차 생산이 일본의 부품조달 차질로 전년비 2개월째 감소했고 원유생산도 큰 폭 하락한 반면 전력과 철강생산은 소폭 개선됨. 5월 산업생산 둔화가 일본지진 영향과 전력난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고정자산투자도 증가세를 이어가는 만큼 7월에는 회복양상이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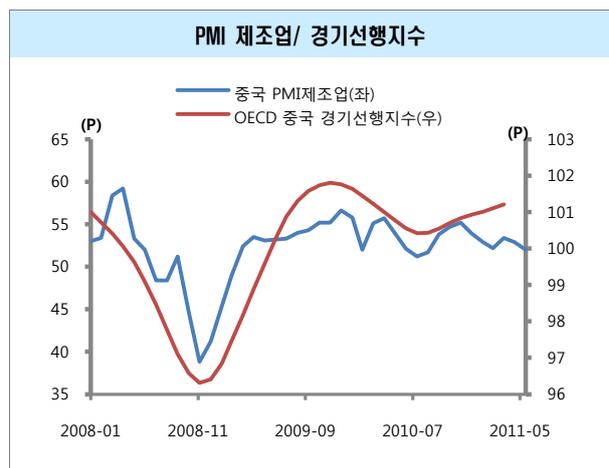
고정자산투자는 지방정부의 재정확보 차원의 부동산 개발붐으로 증가세를 지속함. 5월 도시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비 25.8% 증가하며 작년 5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냄. 특히 1,2차 산업의 투자증가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서 제조업 경기모멘텀 회복을 시사. 다만 고정자산투자는 2007년과 같은 인플레이 유발요인으로 지적되기에 부동산 투기근절 등 긴축정책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만큼 가변성은 존재함.

한편 내수부문은 긴축여파와 식료품, 생필품 가격급등으로 부진이 지속됨. 5월 소매판매가 전월비 16.9% 하락하며 5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함. 세제혜택 종료로 자동차 판매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수출둔화 마저 제기되고 있어 정부당국의 정책적 딜레마가 우려됨. 소비진작을 위한 물가통제가 긴축에 의한 생산둔화로 이어질 수 있어 성장과 안정의 조율이 쉽지는 않은 상황임.

최대 관심사인 물가지표는 고공행진을 지속함으로써 긴축이완의 기대감이 아직 때 이른 느낌임. 5월 CPI가 34개월래 최고치(5.5%)를 기록했고 PPI도 전월과 동일한 6.8%를 나타내며 예상치(6.5%)를 상회함. 돼지고기 등 식품가격이 11.7% 상승한 가운데 비식품 가격이 전년비 2.9% 증가하며 주거비 부담이 확산됨. 결국 중국 경기는 수출둔화 여지속에 내수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이나 중국당국은 성장기조 틀내에서 인플레이 통제수위를 가져갈 것이기에 물가안정과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라서는 긴축이완에 의한 연착륙 가능성은 높다고 평가됨.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4. 수급 동향

1) 외국인

6월 외국인 매매기준은 대외 불안변수에 의한 소극적 매도로 집약. 5월 중순 원자재 가격급락 등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강한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은 6월 전후 일시적 매수전환후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지며 유럽계 중심으로 또다시 자금유출을 보임. 이머징마켓 펀드가 감소한 가운데 외국인 매매방향이 달러 인덱스와 연동성을 띠고 있어 캐리트레이드의 제한적 시장참여를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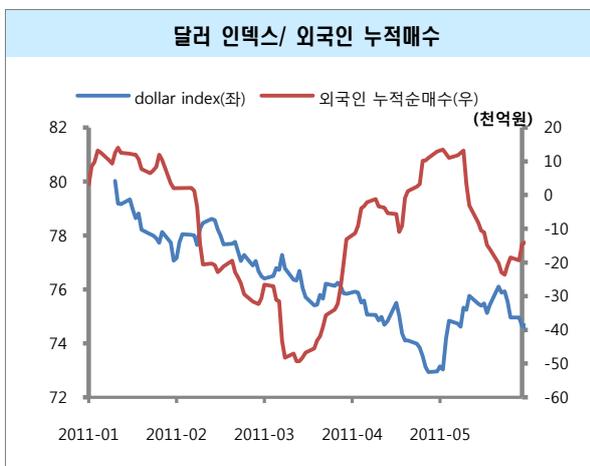
5월 외국인 매도가 자동차와 화학 등 선도주 중심의 차익실현이었던 반면 6월에는 기초적 중립입장 고수함. 미국과 중국계 자금 등 중장기 펀드로는 우호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7월 외국인 수급의 기대변수는 1)그리스 사태의 부분해소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2) QE2 종료선언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희석 3)실적시즌 진입에 따른 하반기 기대감 4)저금리 지속하에 달러화 약세 가능성을 들 수 있음.

7월 그리스 위기진화에 따라서는 유럽자금의 국내유턴이 예상되고 2분기 실적전망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에서 서머ल्ली 진입은 하반기의 실적개선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상황임. 그외 일본 조업정상화와 원자재 가격안정 등 회복시그널이 예상되는 미국 경제지표는 연준리의 양적완화책 종료선언에 따른 정책변수의 불확실성 희석과 더불어 국내증시의 저평가 인식을 강화시킬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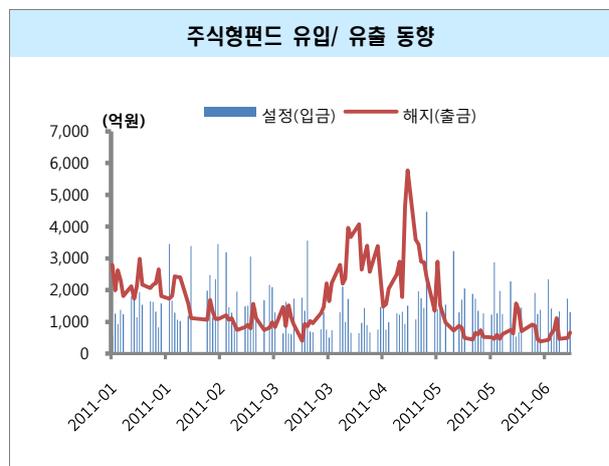
2) 국내기관 및 개인

6월 증시를 떠받친 국내기관은 7월에도 우호적 수급주체로 남을 전망. 실질금리의 마이너스 환경과 지수조정으로 펀드유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유입금액 대비 투신권 매수규모가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매수역력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됨. 주식형펀드는 작년과는 달리 지수하락 시 유입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 시장의 하방경직성을 부여. 그외 국민연금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의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우정사업본부도 주식비중을 늘리고(4%대→6%전후) 있어 지수방어 주체로서 역할이 강화되는 중.

한편 4월말 17조원대의 사상최고 수준을 보였던 고객예탁금은 5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며 현재 15조원대에 머물고 있음. 7조원에 육박했던 신용잔고도 6조원 초반대로 감소한 모습이나 2,3조원대에 그쳤던 2,3년전 통상적 수치와 대비한다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므로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반전 시기에 비중축소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다만 금리인상 시점에서 채권의 투자메리트 감소와 정부의 내수부양 의지 그리고 내수주로의 시세형성은 대기성 시중자금의 증시참여를 불러낼 수 있는 기대변수로 주목됨.



자료: Fnguide



자료: 금융투자협회

5. 7월 지수전망과 투자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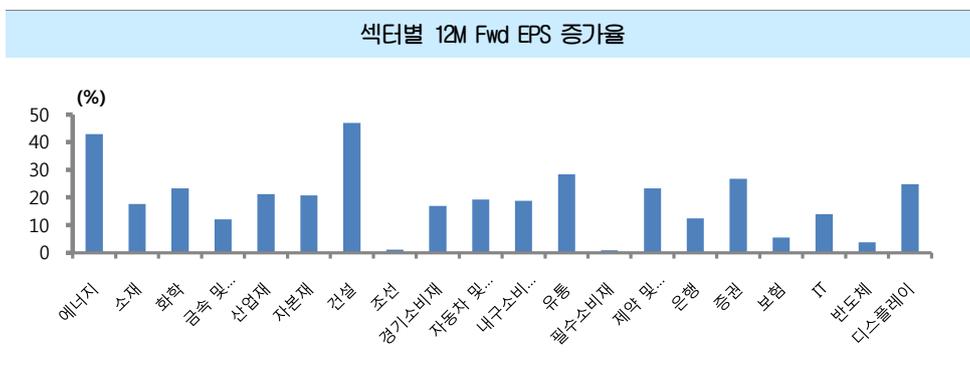
7월 국내증시의 KOSPI 밴드는 2,050~ 2,170선 전후로 예상. 5,6월이 해외변수 불안심리에 따른 지수 조정기였다면 7월 장세는 기간조정 흐름 가능성이 높음. 헤드앤쇼울더 형태의 차트형성은 추가하락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하나 유럽위기 진정에 따라서는 별다른 악재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성강화 속에 지수의 상승반전이 모색될 것임. 경기 및 실적우려가 일정 선반영된 시장상황에서 어닝시즌에 진입할 7월 증시는 확정 실적치에 대한 실망보다는 하반기 가이던스에 대한 기대가 우선 반영될 수 있는 여건임.

지수상단 2,170선은 12개월 예상 PER 10배를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서 5월 6일 갭 하락 직전 지수대임. 지수하단은 일본지진 이후 전개된 상승폭의 62.8% 되돌림 적용구간으로서 5,6월 조정장시 일시적 이탈(6/20일)을 제외한다면 지지역할을 수행했던 2,030 선보다 다소 높은 2,050 선으로 설정함. 7월 시장은 경제지표 및 통화정책에 대한 확인 과정속에 기간조정 성향을 거친 후 중반 이후 글로벌 경제지표 개선에 따라 점진적인 상승반전 모색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됨.

투자 유망섹터로는 차,화,정 주도논리는 유효하다고 판단됨. 자동차 업종으로는 일본지진 여파의 수혜가 길어질 부품업체가 유망해 보이며 화학과 정유주도 2분기 계절적 약세를 극복하며 3분기부터 제품가격 상승과 전력난에 따른 원유수요 증가 등으로 실적모멘텀이 재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그외 중동지역 개발붐에 따른 플랜트 업체의 실적반영이 하반기에 본격 가시화될 전망이고 틈새전략의 대체 주도주로 떠오르는 유통/ 호텔/ 생필품/ 은행주 중심의 내수주에 대해서도 관심이 요구됨.



자료: BS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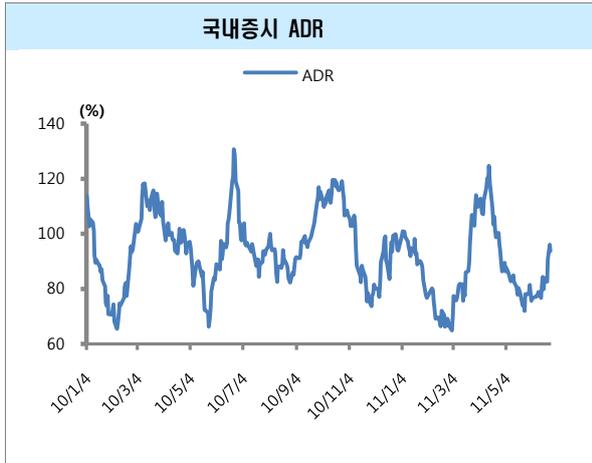


자료: Fnguide

6. 투자유망 종목

- 7월 투자유망 종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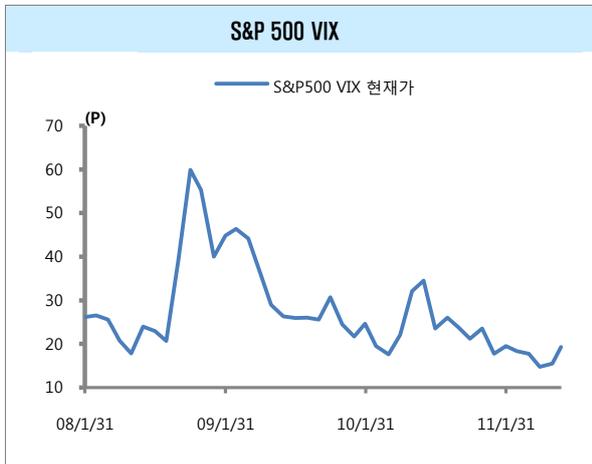
| 업종 | 내용 | 유망종목군 |
|--------|--|----------------|
| 자동차 | - K5의 해외 수요기반 확대속에 공장증설을 통한 생산라인 확충 - 독점 개발중인 연비절감 부품(DCT)의 보급 확대 | 기아차 현대위아 |
| 화학 | - 중국 긴축에 따른 모멘텀 약화에도 불구하고, 증장기 호황 사이클 - 주력제품 판매호조와 동업종 대비 상대적 저평가 | 호남석유 한화케미칼 |
| 섬유의복 | - 소비심리 회복과 자산가치 효과로 실적모멘텀 부각 - 원화강세에 따른 내수주 관심과 의류시장 트렌드 변화 | LG패션 영원무역 |
| 그외 내수주 | - 국제 곡물가 하락 안정속에 제품가격 인상 - 해외여행 수요 회복과 면세점 개장에 따른 이익모멘텀 | CJ제일제당 호텔신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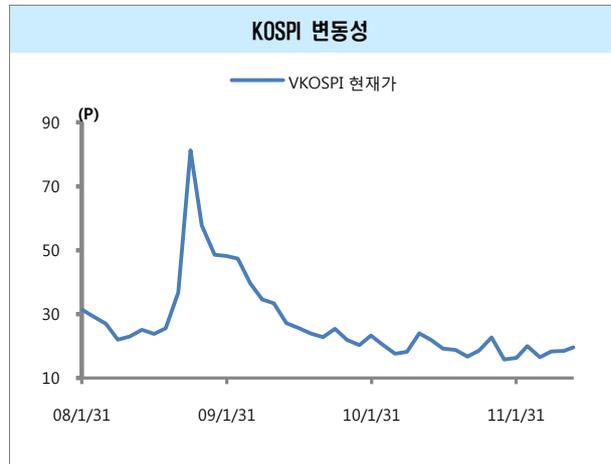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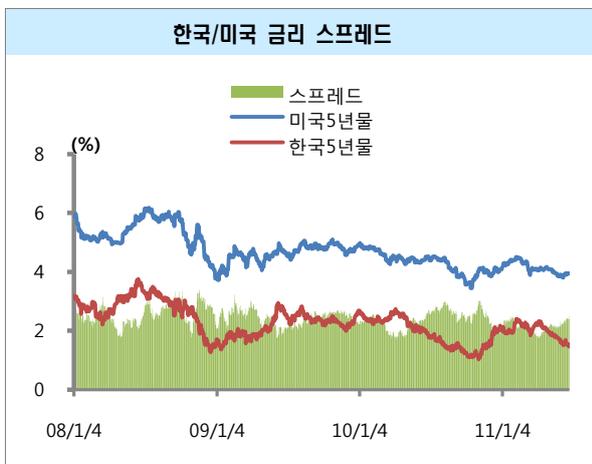
자료: Fn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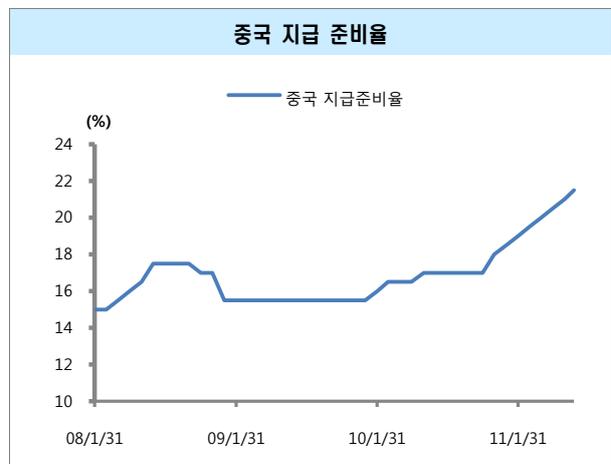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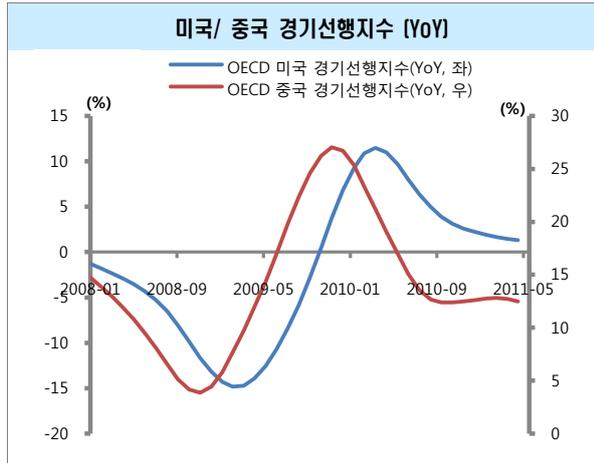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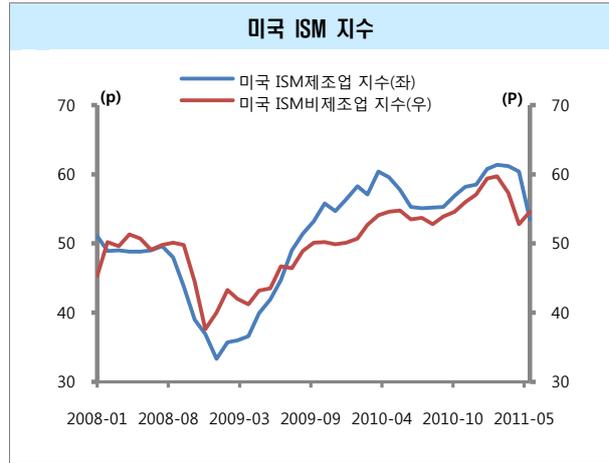
자료: Fn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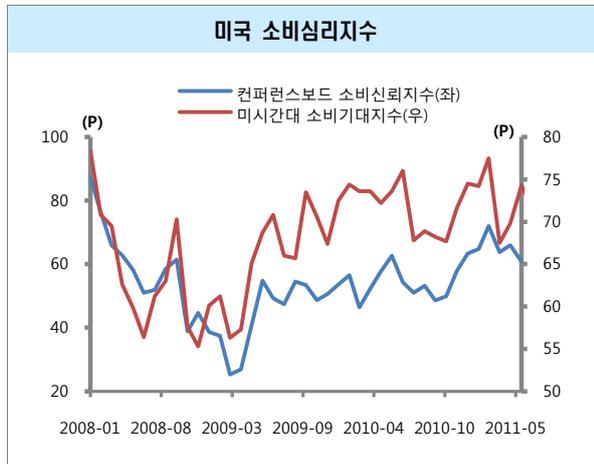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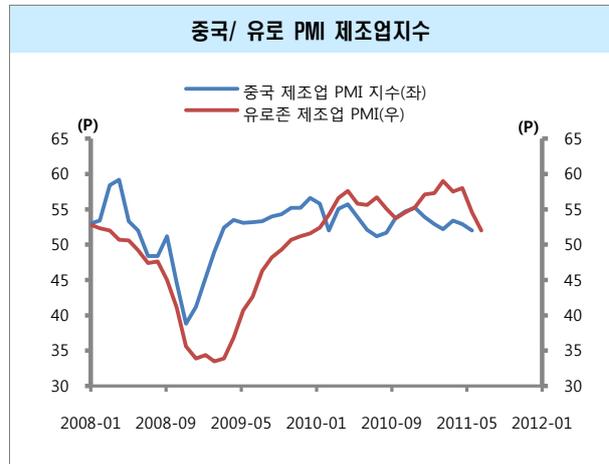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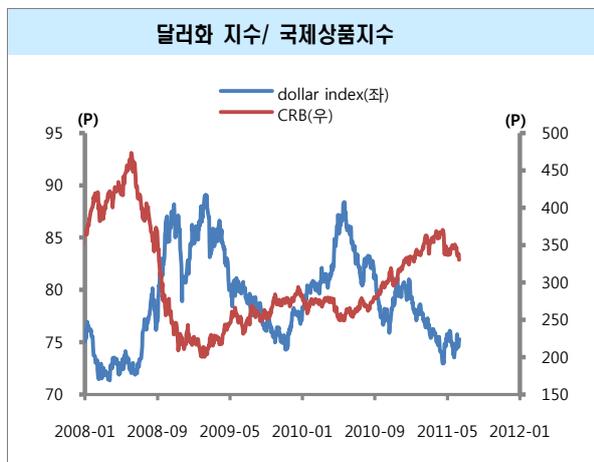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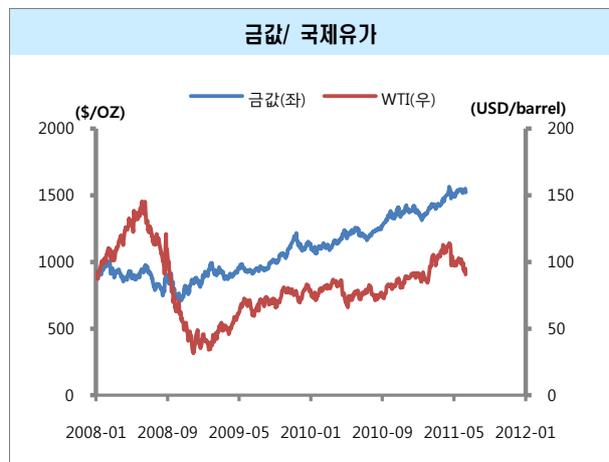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